

# 광주 자율주행·로봇·드론 일상되는 미래도시 된다

### 시·국토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용역 착수 강기정 시장, 이 대통령에 요청 국정과제 반영 1조5000억 투입...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대한민국 최초로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미래도시가 광주에 들어설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강기정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테크노미래에서 "직·주·락(職任樂)이 결합된 신도시와 규제프리존·메가센드박스 기능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서는 혁신적 미래형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와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복합시범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프리존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즉 자율주행차 기본 교통수단이 되고, 도심항공교통(UAM)이 하늘길을 열

며, 인공지능 로봇이 택배배송·생활지원 등을 담당한다.

모든 인프라는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돼 교통체증 없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직장(職)·주거(住)·여가(樂)가 하나로 연결되는 생활방식을 통해 출퇴근 개념이 사라지고,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일정과 선호를 학습해 최적화된 생활패턴을 제안한다. 아침에 자율주행차가 개인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도착하고, 업무 중 필요한 자료는 드론이 배송하며, 퇴근 후에는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도시 상공을 통해 이동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시범도시 내에 주거·문화·휴식 기반시설을 갖춰 일과 삶이 공존하는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연구소·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인공지능(AI)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접근성, 미래차산업 연계성, 교통 편의, 주거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2억원 규모의 사전 기획연구를 착수하고, 올해 안에 큰틀에서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 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2026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8년에 착공해 2030년 말 준공이 목표다.

건축, 도시계획, 도로, 자동차, 로봇, 물류, 인공지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기업 수요 반영, 실증 규제 발굴, 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설계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제조업, 물류 등 산업에 인공지

능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퍼지컬 인공지능 미래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산업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퍼지컬 인공지능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반영하고, 추기경 정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도시 인프라와 산업부의 제조업 퍼지컬 인공지능은 상호 분리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대표 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선점한 광주에 미래도시인 AI 모빌리티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금껏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이 생활 전반

에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국정과제 반영 및 사업 추진은 국토부가 광주의 아젠다를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RE100 에너지고속도로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광주를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의향 전남 자궁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순항

### 공정률 85%·11월 준공 예정 내년 3월 개관 준비 돌입

의향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8월 현재 박물관 건립 공정률 85%를 달성, 목표했던 오는 11월 준공, 2026년 3월 개관이 무난할 전망이다.

유물 수집과 전시물 제작·설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의병박물관 개관준비단이 현장으로 사무실을 옮겨 공사 마무리와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국운동에 앞장선 의병의 최대 산실로서 호남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2024년 3월 착공, 총사업비 422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무명영웅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카페테리아,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된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임진왜란 전후 의병



활동부터 대한제국 전후 의병까지, 나라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의병의 역사를 다양한 조형물과 디지털매체 등을 활용해 전시할 예정이다.

추모전시실은 평범한 민초였던 의병이 자발적으로 봉기에 이르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등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박물관은 다가올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의병 생활상을 체험할 교육공간으로 꾸며진다.

다목적 강당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산강을 조망할 카페테리아는 관람객의 휴게공간이자 지역 관광명소로 조성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의병 관련 유물은 총 385점이다. 주요 유물은 '호남

# 바로연

바른남, 바로결혼

의향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8월 현재 박물관 건립 공정률 85%를 달성, 목표했던 오는 11월 준공, 2026년 3월 개관이 무난할 전망이다.

유물 수집과 전시물 제작·설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의병박물관 개관준비단이 현장으로 사무실을 옮겨 공사 마무리와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국운동에 앞장선 의병의 최대 산실로서 호남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2024년 3월 착공, 총사업비 422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무명영웅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카페테리아,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된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임진왜란 전후 의병

활동부터 대한제국 전후 의병까지, 나라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의병의 역사를 다양한 조형물과 디지털매체 등을 활용해 전시할 예정이다.

추모전시실은 평범한 민초였던 의병이 자발적으로 봉기에 이르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등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박물관은 다가올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의병 생활상을 체험할 교육공간으로 꾸며진다.

다목적 강당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산강을 조망할 카페테리아는 관람객의 휴게공간이자 지역 관광명소로 조성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의병 관련 유물은 총 385점이다. 주요 유물은 '호남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저우로 173 4층(명동빌딩 3층) (상무저우 롯데마트 옆)

NAVER 광주바로연

### 바흐가 지휘한 '성 토마스 합창단' 광주 온다

#### 독일 대표 소년합창단...내달 11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공연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지휘했던 독일 '성 토마스 합창단'이 광주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는 우호도시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이 다음달 11일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첫 내한공연을 한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2012년 광주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독일 라이프치히시에 소속된 소년합창단으로, 1212년 설립해 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키는 독일의 대표 합창단이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1700년대 단장이자 지휘자를 의미하는 토마스칸토르(Thomaskantor)로 재직하며 그의 마태수난곡·오라토리오·칸타타 대부분을 조연한 곳으로 유명하다.

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는 바흐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가,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의 합창곡을 아우른다.

매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며 매년 2500명 이상의 청중을 불러모은다. 20세기 들어 활발한 해외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라이프치히의 문화대사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성 토마스 합창단의 사상 첫 광주공연은 양 도시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공연 티켓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관람료는 R석 5만 원, S석 3만원, A석 1만원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